

2022 젊은건축가상 심사평 (조민석)

재능, 기회 그리고 복극성

창작 분야에서 누군가를 평가한다는 것은 항상 불편한 일이다. 특히, '젊은건축가상'의 경우 '젊다'는 것으로 평가 대상을 범주화하기 위해 생리학적 연령을 근거로 삼은 것이 다분히 임의적이라 더 그렇다. 평가자로 가담한 나의 자격이 이 임의적 연령 범주를 훌쩍 벗어나기에 받을 법한 오해, 즉 살아온 시간에 비례한 지혜의 무게나 신념의 견고성에 대한 기대로 주어진 자리라면, 더욱 부담되는 일이다.

나를 포함한 모든 이가 공통으로 경험하지만, 동시에 각자 항해해야 할 '지금'은 누구에게나 공평하게 끊임없이 새롭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2019년 심사 참여 이후 올해 두 번째 초청을 기꺼이 수락한 이유가 있다. '2022 젊은건축가상'을 일종의 척도로 삼아 새롭게 변화하는 '지금'을 함께 심층 탐구하며, 그들이 건축 작업을 통해 드러낼 어떠한 가능성을 통해 '지금'에 관한 영감을, 나아가 지금 이후에 대한 희망을 가져볼 수 있지 않을까 해서다.

재능

다양한 분야의 인재들이 커리어의 초창기에 받게 되는 인정에는 그들이 특별한 재능을 바탕으로 펼쳐낼 잠재성에 대한 기대와 응원의 의미가 담겨 있다. 그러나 건축은 여러 창작 분야 중, 젊음이 드러내는 순도 높은 재능에 관한 숭배나 집착이 가장 적은 분야일 것이다. 이를테면 소년기를 채 벗어나지도 않은 이의 쿵쿠르 수상을 통해 한 세기를 대표할 대가의 출현을 온 세상이 동시에 목도하는 식의 소설보다 더 극적인 전개는, 건축 분야에서는 한 번도 없었던 것 같고 앞으로도 없을 것이다.

이는 건축이 산속에 들어가서 수도승처럼 치열하게 준비하고 불현듯 세상으로 나와 모든 이의 마음을 한 순간 움직일 수 있는 일과는 거리가 먼 작업이기 때문이다. 무엇보다 '수도' 단계와 비견할 수 있는 건축의 준비 과정 자체가 온 세상과의 지난한 대화를 통해야만 가능하다. 내딛으려는 걸음 하나하나마다 뒷다리 걸어서 넘어뜨리고자 하는 목적으로 만들어진 듯한, 거대하며 정교한 체계로 종종 여겨지는 '세상'과의 복잡한 관여를 통해 그럴싸한 결과물을 어찌다 한 번 건져낼 수 있는 일이 건축이기 때문이다.

이것이 뉘두리는 아니다. 건축은 매체의 특성에서 기인한 유난스러운 과정 덕에 창작 분야 중 상대적으로 외롭거나 지루할 틈이 없어 비교적 건강한 정신을 유지하게 하는 분야다. 또한, 다른 분야에 비해 저주와도 같은 젊은 시기를 즐겁게 버티며 사이비 교주나 약장사가 되지 않고, 경험을 쌓으며 조금씩 진화한다면 커리어 후반기로 접어들수록 타인에게 숭배까지는 아니지만, 존중받을 수 있는 분야다. 나아가 이 고강도의 일은, 별다른 욕심이 생기지 않을 정도로, 바라봐지고 만져지고 느껴지는 방식으로 꾸준히 보상을 안겨 주기에, 혹 외부로부터 인정받을 기회가 없더라도 노동을 넘어서 '업'으로 오랫동안 즐겨 할 수 있는 특별한 면이 있다.

올해 참가자들의 재능은 일단 기대 이상일 뿐 아니라 차고 넘쳤다. 심연에 잠겨 드러나지 않은 빙산을 헤안으로 투시해 세상에 드러나게 하는 것이 심사위원의 역할이었다면, 이것이 무색할 정도로 다수의 빙산이 이미 노출되어 있음을 심사 과정에서 발견할 수 있었다. 2022년의 이 풍요로운 축복은 건축 분야를 넘어서 한반도 남쪽 나라 문화 생태계 전반의 조건을 새롭게 규정하는, 다양한 제반 여건 중 하나로 설명할 수

있겠으나 흔한 ‘국뽕’질이 될 듯하여 이 정도로 줄인다.

2차 공개 심사장에 초대된 아홉 팀은 우열을 가릴 수 없을 만큼 재능 있는 이들이다. 그러나 먼 훗날 이들이 가진 뛰어난 건축적 재능들이 모두 세상에서 유용하게 쓰이고 있을지는 모를 일이다. 돌이켜보건대 재능이라는 것이 이 분야에서 지속적으로 기여하기 위한 필수 조건은 아닌 듯하다. 재능 이후의 단계, 즉 주어진 어떤 기회들을 신중하게 선택하고, 오늘의 경험들을 자양분 삼아 오래 이어가게 할 원동력이 무엇 일지가, 젊은건축가상이 더 의미 있는 상이 되기 위해 주목해야 할 주요 관심사일 것이다.

기회

심사위원들과의 토론 자리에서 ‘우리에게 헤이리와 파주가 있었다면, 이 세대에게는 스테이폴리오(stay-folio)가 있다’는 관망을 공유했다. 우스갯소리 같은 이 이야기는 20여 년의 거리를 두고 민간 영역에서 젊은 건축가들에게 문화적 행위로서의 건축 기회가 주어지는 방식의 변화를 보여주는 단면이다. 이 현상을 집합적/개별적, 조직적/산발적, 엘리트적/대중적, 이념적/실용적... 등의 대조 항들로 거칠게 기술할 수 있다면, 20년 사이 큰 간극을 설명하는 가장 큰 요인은 전 지구적 디지털 천지개벽으로 인한 건축의 생산, 소비, 향유 방식의 변화일 것이다.

기회에 관한 또 다른 반가운 소식은 공공 영역에도 있다. 3년 전 나의 첫 심사 당시 당선자 중 한 팀이었던 아이디알 건축사사무소의 작업은, 이 나라에서도 어렵지만 드디어, 공공의 일만으로 건축가의 커리어를 시작할 수 있음을 인지하게 한 반가운 충격이었다. 이 긍정적 변화는 올해 급속히 심화되어 있었다. 이번 응모팀들에게 공공 영역의 작업들은 어느 정도 보편화되어 있었고, 공공 건축은 젊은 건축가들의 커다란 ‘놀이 공원’이 되어 있는 느낌이었다. 이는 공공을 위한 문화적 행위로서의 건축과 건축가의 보다 존엄한 사회적 역할이라는 면에서 무척 고무적이다. 더디긴 하나 공공 영역에서의 건축 생산 체계는 개선되고 있으며, 이 시대 젊은 건축가들이 아직 지치지 않고 열정과 관심으로 이 일에 뛰어들고 있다는 것에 대한 감사한 확인이기도 하다.

북극성

세대마다 꽃길보다는 그 세대만의 ‘기회의 진흙탕’이 주어진다. 진흙탕이지만 이 속에서 연꽃을 피우는 이들이 있기에 기회라 할 수 있는 것이다. 그래서 선택한 다양한 민간, 공공 영역의 기회들을, 어떻게 새로운 가능성을 향한 발판으로 삼았는가가 관심사다. 망망대해에서 제각기 건축이라는 조각배를 하나씩 타고 긴 항해를 막 시작한 이들이 눈앞에 직면한 과제 해결의 와중에도 또 다른 가능성의 ‘너머’를 어렵웃이나 마 바라보고 꿈꿀 수 있는 것은 그들이 자신들만의 북극성을 GPS처럼 품고 있기 때문일 것이다.

어떤 이는 너머를 인지하지도 못 하며 많은 이가 별떼처럼 뛰어드는 가까운 곳, 가장 환한 별을 좇는다. 어떤 젊은 기운은 유한성을 거부하고 세상을 통째로 삼키려는 듯, 동시에 여러 북극성을 좇으며 지치지도 않고 분주히 갈지자 항해를 하고 있을 수도 있다. 또 어떤 이는 뜻밖의 먼 곳에서 희미하지만 명확한 방향을 제시하는 별에 끌려 느리고 먼 여정을 떠나기도 한다.

확실한 것은 모두가 한 시대를 함께 하고 있지만, 각기 다른 특별한 재능과 다양하게 선택한 기회들, 그리고 각자 품은 북극성을 통해 고유한 궤적들을 여러 속도로 그리고 있다는 것이다. 물론 앞으로 정지를 포함한 다양한 궤도 수정들이 있을 것이고.

수상자들

스테이폴리오로 대표되는 디지털 영역으로 인해 급격하게 개편, 재조직되고 있는 삶의 방식에서 파생된 기회를 이용한 작업들에는 이에 관한 비평적 태도가 두드러진다. 카인드 건축사사무소가 관심을 가지고 성취하고자 하는 ‘생경한 자유로움’은 시각 문화 중심의 디지털 영역에서 간과한 경험들을 다시 일깨우려는 야심이다. 이를 통해 건축으로 구사 가능한 ‘분위기’를 포함한 다양한 총체적 감각들을 다시 소환하려 한다. 근본적인 건축의 가능성을 다시 환기하며, 그래서 그들의 밀도 있는 탐구를 기대하게 된다.

공공 영역에서 젊은 건축가들이 다양하고 활발한 참여의 결과물들을 통해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선한 공공적 전제와 의도만으로 탁월한 건축적 성취가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라는 점이다. 심플렉스 건축사사무소가 선택하고 성공적으로 수행한 공공 프로젝트들은 강도 높은 도전적 설정이라는 면에서 돋보였다. 이는 건축가가 나아가고자 하는 방향을 담담하지만 선언적으로 표명한 회사명과 배치될 수도 있다는 면에서 더욱 그러하다. 단순하지만 지나치게 간단하지 않고(simple but not simplistic), 복잡적이지만 복잡하지 않겠다는(complex but not complicated) 결심으로 이해되는 그들의 섬세한 지향점은, 강남의 상업 건물이나 강북의 고가 하부 공공 시설에서 무차별적으로 일관성을 불어넣어 한층 고무적이며, 이 일관된 태도가 앞으로 더욱 다양한 문화적 조건들에 적용되길 바란다.

김효영 건축사사무소의 작업은 3년 전 같은 자리에서 심사위원 자격으로 접했기에, 그가 선택한 특정한 방향에서 그간의 전개 상황을 살펴볼 특별한 기회였다. 유희적 참조와 차용을 서슴없이 드러내는 건축적 결과물 자체, 그리고 이와 동시에 이루어지는 건축 내부의 담론과 마찰을 유발하는 일종의 메타적인 방법론, 이를 위해 쓰이는 도구들이 더 풍족해졌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그의 작업은 포스트모더니즘 건축의 한국적 부활이라는 과도하게 단순화한 독해 대신에, 영화계를 선두로 한 한국 동시대 대중문화에서 일종의 증상처럼 치부되었다가 형식적, 방법론적 고유함으로 인정되며 만개한 가능성들과의, 건축 생산이라는 맥락에서의 동시대적 접점으로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이전에 제시해온 완결적 프로젝트들에서 나아가, 새롭게 보여준 폐기된 산업 시설의 과정적 전유 과제는, 세상을 향한 날선 태도를 취해서 서로 상처를 가하는 상황을 만들기보다는 포용과 긍정을 원동력으로 삼고자 하는 이 건축가의 확장적 생명력에 대한 기대를 멈추지 않게 한다.

심사위원장 조민석

2022 젊은건축가상 심사평 (남성택)

김효영(김효영 건축사사무소)

김효영의 건축이 생애 내는 형태들은 익숙하면서도 낯설다. 잊힌 시간의 흔적 속에서 찾아내거나 우리 주변에서 흔히 존재하던 것 가운데 주의를 기울여 발견한 형태들이다. 이렇게 선택된 어휘는 그 사이의 상호적, 맥락적 관계가 재설정되며 새롭게 인지된다. 평범함을 비틀어 만든 시구(詩句)와 같은 김효영의 건축은 선택과 배열이라는 일상적인 구성 방식에 충실한 것이기도 하다. 그의 건축은 포스트모던의 건축을 소환시키곤 한다. 하지만 근대주의에 대한 반동, 전통의 복구, 지역적 향수, 대중 상업문화의 선언 등처럼 특정 이데올로기의 집단적 지향을 외쳤던 과거의 거대 서사시적 건축들과는 다르다. 여기서는 건축가 개인의 자서전적 건축으로, 그가 성장하고 삶을 영위하는 가운데 평상적으로 마주하며 흡수했던 다채로운 참조대상들, 건축적이거나 비 건축적인, 형상적이거나 추상적인 이미지들이 자유롭고 직관적으로 건축 속에 구현된다.

박정환, 송상헌(심플렉스 건축사사무소)

심플렉스의 건축은 그 이름의 지향점처럼 절제된 단순함 속에 복합성을 품고자 노력한다. 그들의 건축은 고전적인 미학의 전통인 단순성(simplicity)을 뒤따르고 있는 셈이다. 이러한 점에서 심플렉스의 건축은 새로운 형태에 대한 맹목적 추구보다 본질적으로 오래된 건축적 태도의 결과이다. 그들의 작품이 완숙하고 노련한 건축가의 작업처럼 느껴지는 이유가 이 때문일 수 있다. 건축은 매순간 전복되고 대체될 대상이라기보다 지속적으로 계승되고 발전될 대상으로 자리 잡는다. 심플렉스의 건축은 간단하고 명료하며 효율적이고 기능적이다. 그들이 조성한 건축은 복잡한 현실적 조건과 필요를 해결하는 순수한 형태와 공간을 제시한다. 그들의 작품 가운데 <종암스퀘어>나 <이사부 독도 기념관>처럼 비교적 큰 규모의 공공 기획 프로젝트들이 발견된다는 점도 주목할 필요가 있다. 공공 건축이 젊은 건축가들에게 기획의 요람이 되어야 한다면 심플렉스는 이를 증명하고 있다.

이대규, 김우상(카인드 건축사사무소)

카인드 건축사사무소는 정확하면서도 감성적인 건축을 보여준다. 그들의 건축은, 프로그램이 무엇이든, 신성한 건축에서 볼 수 있던 공간적 특질을 지니고 있는데, 특별한 분위기의 장소들이 순차적으로 전개되고 상호 연계되며 순례적 내레이션을 공간감을 만들고 있기 때문이다. 건축가도 일주문에서 대웅전까지 연결되는 한국 사찰 공간에서 깊은 영감을 받았음을 밝힌 바 있다. 그들의 섬세한 구축 속에 건축의 이음매들은 사라진 듯하다. 그 결과 얻어진 순수한 표면은 재료적 물성에 다시 집중할 수 있도록 한다. 공간의 긴장감이 명상과 감성을 극대화한다. 건축 내부로 빛과 풍경이 깊숙이 스며든다. <몽재>의 어두운 공간이 대표적인데, 여명 속 공간, 또는 카메라 옵스큐라 속에서 풍경의 초점이 집중된다. 그들의 건축은 향수처럼 공감각적 경험을 응집한다. 미로 속 순례자들은 그들 스스로의 기억과 감수성이 결합된 고유한 분위기 속에 젖어든다.

심사위원 남성택

2022 젊은건축가상 심사평 (윤경숙)

도시적 그리고 사회적 관점에서 이전 세대보다 폭넓어진 건축가의 사회적 기여를 기대하며 젊은건축가상을 바라보았다. 건축 작업을 통해 각자의 방식으로 공익에 기여하고, 이웃 간의 관계를 회복하려 노력하며 더불어 완성도 있는 공간을 통한 다수의 공감대를 끌어낼 수 있는 역량과 가능성을 주요 심사 기준으로 삼았다.

박정환, 송상헌(심플렉스 건축사사무소)

도시에서 건물이 가져야 할 공공성에 대해 민간 및 공공 프로젝트에 걸쳐 치열하게 고민하는 모습이 인상적이었다. 건축이 가질 수밖에 없는 복잡성을 간결한 방법으로 해결해내려는 자세 또한 보기 좋았고 이루어낸 성과가 적지 않았다. 공공 프로젝트가 가진 예측하기 어려운 상황에서도 자신들의 건축관을 실현하려는 노력과 어려움이 동시에 보였다. 지금까지의 노력과 경험을 바탕으로 앞으로의 가능성이 기대되는 건축가들이다.

김효영(김효영 건축사사무소)

‘건축물을 통한 관계 맺음’이라는 단단한 사유 위에 작업해온 결과물들은 일관성 있게 현시점, 대한민국에서의 건축의 의미를 갈구하고 있다. 직설적이지만 명쾌하고 세련되게 관념과 직관을 풀어낼 수 있는 건축가이며 사조나 형식에 구애받지 않는 유연한 작업 방식이 돋보인다. 그 속에 숨겨진 절제된 건축적 질서 또한 탁월하다. 건축물의 도시적 맥락과 그 속의 이야기들에 귀 기울이는 태도가 매력적이다. 건조한 도시 풍경 속에 김효영 건축가의 해석으로 탄생할 새로운 작업이 기대된다.

이대규, 김우상(카인드 건축사사무소)

공간의 아주 작은 부분까지도 섬세하게 처리하는 모습이 지난 5년간의 밀도 있는 시간을 대변한다. 공간을 연출하는 방법과 조형미의 완성도가 매우 높다. 그리고 그것들의 조합이 만드는 공간의 분위기는 사뭇 특별하다. 설계뿐만 아니라 현장에서의 집요한 관여를 통해 이루려고 했던 정서적 경험의 실현이 돋보인다. 이들이 가진 튼튼한 내공을 바탕으로 공공을 위한 건축물도 만들어가길 바란다.

수상한 세 팀만큼 공모에 참여한 건축가들의 성과는 대한민국의 척박한 건축 환경을 고려했을 때 놀라울 따름이다. 41개 팀 모두에게 큰 박수와 응원을 보낸다. 젊은건축가상은 해가 갈수록 건축계와 대중들에게 인지도가 높아지고 있다. 이 상이 단순히 경쟁을 부추기고 소수의 건축가에게만 기회를 주는 행사가 아닌 경합을 통해 함께 걸어가는 동료들을 알아가고 서로에게 힘이 되는 자리가 되길 바란다. 모두가 지치지 않고 오랫동안 즐겁게 건축을 할 수 있는 분위기와 환경을 젊은 건축가들이 앞장서서 만들어주길 바라며, 이제 막 건축을 시작하는 세대에게 건축하는 즐거움과 자긍심이 전달되길 조심스럽게 기대해본다.

심사위원 윤경숙

2022 젊은건축가상 심사평 (임영환)

사십여 명의 젊은 건축가 팀의 작품을 보는 것만으로도 즐거웠던 심사였다. 심사에 참여하는 일이 많지 않지만 가끔은 무언가를 배워오는 심사가 있다. 이번이 그랬다. 기성 건축의 틀에 조금은 무뎠던 내 몸속 감각들이 이들의 생동감 넘치는 작업들을 보면서 다시 살아났다. 12년 전 이들이 서 있는 지금의 단상 위에서 긴장하며 발표하던 내 과거의 기억이 중첩되면서 평가가 아닌 그들과 함께 동화되었던 이벤트와 같은 소중한 시간이었다. 모든 창작의 행위가 그렇듯 건축은 항상 진화하고 건축가의 능력은 해를 더할수록 발전한다. 1차를 통과한 아홉의 팀은 이미 수상한 것과 다르지 않다. 우열을 가르기에는 건축가로서의 확고한 자기 사고와 작품의 완성도가 모두 월등히 뛰어났다. 다만, 최종으로 선정된 세 팀은 올해로 15년 차가 된 젊은 건축가상의 외연 확장이라는 목적과 심사위원회에서 합의한 균형적인 선정 기준에 좀 더 부합했을 뿐이다. 우리 건축계에는 김효영 같은 재기발랄한 건축가도 필요하지만, 박정환, 송상헌 같은 균형감을 가진 보편적인 건축가도 필요하고, 이대규, 김우상 같은 진지한 태도를 가진 수도승 같은 건축가도 있어야 한다.

김효영(김효영 건축사사무소)

건축가 김효영은 익숙한 재료를 가지고 익숙하지 않은 조합과 구현을 통해 생경함을 만들어낸다. 마치 팝아트 혹은 이미 지나간 포스트모더니즘의 재현과도 같다. 팝아트나 포스트모던이 문화에 대한 고루한 서열과 위계를 타파하려 했던 것처럼, 그는 기성 건축가들이 일반적으로 취해왔던 건축에 대한 무겁고 진지한 태도를 과감하게 버렸다. 우리 건축의 세계화가 더딘 이유가 그 진지함 때문이라고 생각하는 나에게 김효영의 이런 태도는 신선했다. <압구정 근린생활시설>이 내가 학창시절 흠모하던 건축가 알로 로시의 <일팔라조 호텔>을 상기시킨다는 질문에 필요하면 무엇이든 차용할 수 있다는 그의 대답이 오히려 솔직해서 좋았다. 하지만, <기와 올린 집>이나 <복터진 집>에서 보이는 이질감과 거친 표현은 그가 성장하면서 극복하고 해결해야 할 과제라고 생각한다. 그래도, 건축의 경직성과 불필요한 진지함을 벗어던진 젊은 건축가의 패기에 박수를 보낸다.

박정환, 송상헌(심플렉스 건축사사무소)

건축가 박정환과 송상헌의 작업은 뛰어나지만 보편적이다. 젊은 건축가답지 않게 공공 프로젝트와 민간 프로젝트를 균형감 있게 수행한 점에서도 그렇고 작업의 완성도 면에서도 마찬가지다. 보편적이라는 말이 가진 우리말의 어감이 다소 일반적이라는 의미로 읽힐 수도 있지만 영어로 번역하면 달라진다. ‘universal’. 모든 것에 두루 미치거나 통한다는 의미로 건축이 추구해야 하는 목적에 가깝다. <종암스퀘어> 프로젝트에는 작은 공공 건축에서 쉽게 볼 수 없는 완성도 높은 디테일이 구현되었다. 고가도로 하부에 건축물을 계획한 것만으로도 훌륭했지만 이것을 다른 것과 차별화시켰다.

이대규, 김우상(카인드 건축사사무소)

건축가 이대규와 김우상은 건축에 대한 진지한 태도 때문에 좋은 평가를 받았다. 마치 수도승처럼 담담하게 질문에 답변하는 모습이 그들의 작업과 굉장히 유사했다. 솔직히, 처음 포트폴리오를 보고는 별다른 매력력을 느끼지 못했다. 정서적 공간이 그들이 추구하는 건축의 핵심이라는 말을 듣고 작업한 이미지를 다시 보니 그들이 추구하는 건축이 보이기 시작했다. 겉과 속이 다른 사람을 우리가 혐오하는 것처럼 건축도 마찬가지다. 일관성 있는 건축은 특정한 건축 철학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건축가의 일관된 태도에서 발현된다고 생각한다. 프로젝트의 규모와 종류에 상관없이 그들의 진지한 태도와 열정이 그들의 작업에 그대로 드러나 있다.

심사위원 임영환

2022 젊은건축가상 심사평 (최진석)

김효영(김효영 건축사사무소)

그의 건축은 지적이지 않다. 전통적인 건축의 공공성이나 미학의 완성도와는 거리가 멀고 점점 다양화, 개인의 취향화되어가는 최근의 건축 현상들 사이에서 오래전부터 개인의 이미지들을 가지고 이야기하고 있다. 어느새 그의 말들이 사람들의 이해의 폭 안에 들어가는 시기가 된 것 같다. 자칫 그가 만들어내는 이미지가 포스트모던 건축의 이미지들을 연상시켜 오해를 사기 쉬우나, 그가 사용하고 있는 건축의 언어는 경직된 건축의 공공성과 미학적 완성도에 대한 도전적인 발언이고 결코 가볍게 여길 수 없는 말들이다.

박정환, 송상헌(심플렉스 건축사사무소)

건축과 디자인의 복잡한 문제들에 대해 단순한 해결책을 도출해내려 한다는 사무실의 이름처럼 그들은 당황스러울 정도로 단순한 단어와 이미지를 던지고 있다. 보편적인 건축의 언어를 사용하여 자기 생각의 틀을 보여주지만 그들의 작업은 단순함의 영역 너머에 있다. 한국의 독특한 공공 건축의 과정 속에서 복잡함을 이겨내고 만들어내는 정제된 이미지들은 겪어본 이들 만이 알고 있는 힘든 과정을 이겨낸 결과물들이다. 이에 높은 평가를 주고 싶다.

이대규, 김우상(카인드 건축사사무소)

건축의 물리적인 공간 안에서 생겨나는 여러 작은 현상들을 감각적으로 드러내려 고민하는 팀이다. 세련된 공간의 시퀀스와 현장에서 다뤄질 수 있는 열정의 디테일들이 정교하게 컨트롤되고 있다. 섬세하게 다루어져 다소 복잡하게 인식되는 공간을 단순한 재료의 사용과 디테일에 대한 집착으로 풀어낸다. 현상을 인식하는 배경으로 공간을 구성한다. 때로는 다양한 이미지의 조합이 과도한 연출의 조합으로 보이기도 하나, 과도함을 세련된 감각으로 이겨내는 능력이 뛰어나다. 열정으로 넘어설 수 있는 시기가 지난 후의 행보가 궁금해진다.

심사위원 최진석